시민사회 가능성 탐색에 과녁

현실 변화에 따른 새 인식틀 마련이 과제

김성기 · 한일신학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지금 한국 사회학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이론적 고투의 대상은 무엇인가. 정보화와 지구화로 요약되는 오늘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 그리고 정권교체 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드높이고 시민사회의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 사회학의 주된 과녁이었다. 이 점을 예증하는 사례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보화시대의 미디어와 문화》(세계사)다. 이 책은 98년 4월 한국사회학회와 한국언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정보화 시대의 매체정책과 문화정책〉의 결과물을 엮은 것인데, 우리 사회의 정보화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회학계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하나는 98년 9월 산업사회학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비판사회학대회'이다. 〈변화하는 한국사회〉라는 주제가 웅변하듯이 90년대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국가/노동/문화/인권' 등의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이 대회는 '비판적' 사회과학의 시대 인식을 학계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시민사회 놀이와 일상성 탐구

이렇듯 한국사회학은 〈한국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그 변화의 동태와 실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각론의 수준으로 내려가 사회학 연구의 몇가지 추이를 짚어보면 첫째,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도를 모색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조희연의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당대)이 단연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사회학적 시론으로서, 재작년 김동춘의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창작과비평사)과도 엇비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임희섭·양종회가 공동으로 엮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나남)도 현단계 시민사회론의 좌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의 두 책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 사회학은 정보화·지구화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분석, 이해하는 일, 정권교체 후 시민사회의 형성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이 주된 과녁이었다. '현실과 변동'이라는 화두가 놓인 한국 사회학의 시대적 과제는 분명하다. 그 요구에 값하는 내부의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일상의 사회학'이라는 테마이다. 평범한 일상을 탐구하고 거기에 숨어 있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건져내는 작업은 90년대 학계의 한 특징이기도 한데, 사회학 분야로 국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저술이 있다. 강수택의 《일상생활의 패러다임》(민음사)과 마페졸리의 《현대를 생각한다:이미지와 스타일의 시대》(박재환 옮김, 문예출판사), 그리고 일상생활연구회가 엮은 《한국인의 일상문화》(한울)와 권귀숙의 《신혼여행의 사회학》(문학과지성사) 등이 그것이다. 앞의 두 권이 일상생활을 사회학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한 이론가들의 다양한 사상과 그 흐름을 살펴본다면, 뒤의 책은 한국인의 모임, 의사소통, 먹거리 등 구체적인 일상문화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셋째, 사회학 관련 번역서의 현황을 알아보자. 무릇 '학문의 토착화' 또는 '우리 학문의 정립'은 지금 이곳에서 연구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지상과제이지만, 개인적으로 번역서도 우리 학문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뜻에서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텔레비전에 대하여》(동문선)와 미국 비판이론가 마크 포스터의 《제2미디어 시대》(민음사), 그리고 출판계에 '기든스 바람'을 일으킨 영국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의 《제3의 길》(생각의나무)을 주목하고 싶다. 부르디외의 책은 지식인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 포스터의 책은 미디어 시대의 문화 변동과 그 양상에 대해, 기든스의 책은 '좌우를 넘어선다는 것'에 대해 우리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가 크다. 이 논의는 앞으로 본격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할 듯싶다.

내부의 자기반성 선행돼야

위에서 필자 나름대로 98년 사회학계의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개인의 시선이었지만 한 가지만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작금의 사회학은 전례 없는 사회변화에 직면하여 다소의 혼미를 거치며 새 인식틀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회학 자체가 당대 현실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 아니던가. 당분간 한국사회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못지 않게 '현실과 변동'이라는 화두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사회학의 현주소는 사뭇 낙관적이다. 시대적 과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응전할 것 같으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선선히 답하기는 어렵다. 사회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높지만 정작 그 요구에 진정으로 값하는 이론적 성취를 이루려면 사회학 내부의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왜 그런가.

현재 사회학에서는 '소통의 단절'이란 문제점이 발견된다. 사회학 공동체 사이에 진지한 토론의 장이 부재하다는 말도 된다. 1998년 겨울호로 창간 10주년을 맞은 계간 《경제와 사회》가 돋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부소통이 미흡한 사회학계에서 그나마 '생생한 토론의 장' 구실을 해왔던 거의 유일한 매체가 아닌가 한다. ❖

〈謹賀新年〉

지난 한해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잡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잡지협회
회 장 許光洙
부회장 李 沁
부회장 柳允植

〈謹賀新年〉

한국 전자출판의 세계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전자출판연구회
회 장 이기성
부회장 박세원
부회장 박영실
부회장 이두영

〈謹賀新年〉

전자출판물 인증제도를
정착시켜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999년 새해 아침

한국전자출판협회
회 장 김경희
부회장 문기철
부회장 조명진